

기고

보이스 피싱 피해 후 대처요령
숙지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자

최관중 광양경찰서 경무계장 경감



보이스피싱 예방법은 홍보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유형별 대처요령 및 피해금 환급 절차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경우

112신고 또는 송금은행 전화 후 해당 계좌 자체 거래 정지·차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12신고로 통하면 금융기관 핫라인으로 연결되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현금을 직접 전달 한 경우 상대방이 타고 온 차량 번호와 교부받은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인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두 번째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118(개인정보침해센터)에 발신 번호 거짓 표시, 피싱 사고 신고를 하고 휴대폰 내 악성앱·원격제어앱(TeamViewre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시티즌 코난' 앱을 활용하여 확인을 한 후 필요시 서비스센터, 대리점을 방문하여 초기화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금에 대한 환급절차는 사건접수를 한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나와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평소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 방법을 숙지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자.



변화와 혁신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변화(變化)는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의 형상, 성질 등의 특징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며 특징이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도 있고, 새롭게 되는 것도 변화라고 한다. 변화는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는 것과 사람이 의도적으로 바꾸는 변화가 있다.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가 좋은 방향이거나 나쁜 방향으로 바뀌는 것도 변화며 시간개념으로는 밤낮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변화다. 인간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늙어 가는 것도 변화하며 환경과의 교호작용을 통한 교육에 의해 바뀌는 것도 변화다.

바람직한 변화는 좋은 방향으로 인류와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는 변화다.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변화가 생기므로 시간은 변화의 원동력이다. 시간이 지나면 생명체는 성장의 변화가 있으며 늙어가는 노쇠의 변화가 생긴다.

혁신(革新)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 관습, 조직, 방법 등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것을 말하며, 혁신에 의해 투자, 소비 수요가 자극되어 경제 호황이 형성된다고 주장했던 미국의 경제학자 슈페터의 경제 발전론의 중심 개념이다. 신기술과 기업 경영에서 많이 쓰이며 조직 내의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선거할 때면 되면 후보들이 정치 혁신을 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한다. 직장이나 기업체에서도 새해가 되면 의도적으로 바꾸는 혁신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정치혁신 기술혁신 등의 의도적으로 새롭게 바꾸는 것을 추진한다. 기업체는 경쟁하는 국제사회에서 앞서가려면 기술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이 있어야 하는데 삼성

그룹 이근희 회장은 "우리가 경쟁 사회에서 앞서가려면 처자식만 놔두고 모든 것을 바꾸야 한다"며 기술혁신을 강조했다.

변혁(變革)이란 급격하게 변하여 바뀌는 것을 말하는 데 우리는 대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변혁의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며 살 것인가가 우리 인생의 관심사다. 조금만 신경을 안 쓰다 보면 변혁의 흐름에 이탈되고 낙후 자가 된다. 변혁은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문화 정서적인 변혁도 있다. 출산율이 떨어져 인구가 감소하고 빈집이 많이 생기며 소규모 학교에서 폐교가 생기고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효도의 관심도 바뀌고 있으며 교육하는 학교는 학교의 교육시설이나 교육 방법도 다양하게 변혁되고 있다.

가정환경을 보면 가재도구가 바뀌고 있으며 통신수단이 스마트폰으로 다양하게 시공간을 초월해 활용하며 경제와 유통의 수단인 화폐의 개념도 바뀌어서 전산으로 오가며 결제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이 생기고 있으며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언제 어떤 변혁이 인간의 건강을 해칠지 모르는 변혁의 대비를 하며 살아야 하는 시대다.

쇄신(刷新)은 나쁜 폐단이나 묵은 것을 쓸어 내서 없애 버리는 변화다. 정치 혁신 정치쇄신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정치가 혁신하고 쇄신하면 그야말로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가 된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화의 물결 속에 살면서 스스로 바람직한 변화와 혁신 쇄신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칼럼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honam@naver.com

기고

'강통전세·전세사기도 사회적 재난'

유상현 보성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책을 필요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임차인은 보험만 믿고 정확한 시세 확인 없이 무턱대고 전세를 구하며, 주택보증공사 역시 제대로 된 시세 확인 없이 건축주와 짝 감정평가사의 말만 믿고 그대로 보증계약을 인수하는 현실에서 일반적인 임대인이라면 보증보험에서 선결

2010년 말부터 집주인이 집값하락, 갭투자 실패등으로 파산하게 되어 집이 강통주택으로 전락하는 피해사례 외에, 의도적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때먹으려는 목적의 전세사기에 연루된 강통주택들이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3월에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남성은 12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된, 이른바 '인천 건축 왕'으로부터 7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1년 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 집주인은 인천 일대에 2천7백여채를 지어 자금 사정 악화를 이유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경찰이 확인한 피해 규모만 163채, 액수는 126억원에 달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세사기는 2018년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22년 속칭 빌라왕이라고 불린 인물의 사망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실체화 됐으며, 이런 사례가 단기간에 발생하여 무려 3명이나 발생, 그 중 한명은 전세인이 잔금을 치르고 집주인 명의를 옮긴 시점에서 사망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어 범망의 구멍을 노린 계획적 범죄로 추정되고 있어 더욱더 확실한 해결

제된 임차보증금이 결국 본인에게 구상이 들어오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세보다 한참 부풀린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아예 처음부터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생각이 없는 생각인 것이다.

이러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집주인의 부채나 갭투자 등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때보는 것으로 확인 해 보고, 신탁여부, 저당액, 선순위 채권등을 무조건적으로 알아보아야한다. 그리고 입주 직후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 상황이 반복되는 안되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세잔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고음상담센터	222-5666
▲여성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체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